



# 한국외대 라이9 유명영 1회 - 인문

2019학년도 한국외대의 변화된 논술 출제 유명 분석		
	2018학년도 까지	2019학년도 부터
시간	120분	100분
문양	4문항	3문항
논제 1	200자 이내의 제시문(영문포함) 요약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 요약
논제 2	제시문 A의 관점에서 B를 비판 및 B의 입장에서 재반박하기	제시문 F의 관점에서 A의 두 입장을 각각 C와 D를 활용해서 비판하기
논제 3	제시문 C에 근거하여 D의 두 입장을 비교하기	인문 - 영어제시문에 근거하여 제시문 A의 두 입장 중 선택(자기견해)
		사회 - 자료해석에 근거하여 제시문 A의 두 입장 중 선택(자기견해)
논제 4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 3번은 통합적 사고를 묻는 자기견해형 문제
유사유형	논제 1 - 성공관대 1번, 경희대(사회) 1번 논제 2 - 경희대(사회) 2번	
글자수	400~600자 내외	
채점방식	성균관대와 유사한 채점방식	
<b>따라서 동점자 발생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실질적인 승부는 3번에서!</b>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 할 경우, 그 사회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현대국가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해 왔으며, 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즉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 조건, 근시안적 규제, 시장경제와 같은 유인동기의 부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 빈부격차 및 산업구조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결국은 그 사회 전체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제시문 2>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의 측면은 공무원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인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로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에 대한 중립성 등의 보장을 위하여 집단적인 파업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현행 관련 법령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업무를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법령이 공무원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제시문 3>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복수의 개인들 사이의 평등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상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됨과 동시에 개인들 사이의 평등까지도 보장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불가피하게 희생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 불가피한 상황, 즉 (1)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만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 (2)개인들 사이의 평등은 보장되지만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않은 상황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이 (2)보다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불평등과 타인의 특권을 감내해야 하더라도, 국가뿐 아니라 어느 누구의 침해도 없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가하는 편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는 전체주의적 분위기에서 평등을 구가하는 편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4>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의 능력 차이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 사회 내에서의 빈부격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지나친 확대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의 전체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강제적 가격규제는 비숙련 단순 노동직종을 대체하는 업무 자동화를 더욱 촉진하여,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고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목적이 어떠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임금을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제시문 5>

미국 뉴욕 주 보건당국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비만 방지를 위하여, 학교 인근에서 고열량 인스턴트 음식을 판매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도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voucher)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비만 증상을 보이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고열량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선호를 무시하는 정부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뉴욕 주 의회의 조례로 통과 되고 뉴욕 주민 대다수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제시문 6>

SSM(Super Supermarket)은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최근 정부는 SSM에 관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 권리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제시문 6>의 입장에서, <문제 1>의 두 입장에 대하여 각각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인문계열 문제 3]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사회체제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인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Language policy in Latin America is assimilationist\*, seeking "to impose the colonial languages on speakers of other languages, whether they be immigrant, slave, or indigenous\* people." Spanish-speaking settlers in Latin America shared a puristic language ideology which initially considered anything indigenous to be impure. When considering the flexibility, creativity, and social aspect of language, employing a unilingual policy on a national level raises certain concerns. Saussure, a Swiss linguist, argued that language arbitrariness\* should be a point of consideration and mentioned that language communicability is achieved through the natural inclinations of a language community. Nevertheless, a national policy on language, as set by the government, warrants certain merits. A government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escribing a communal identity to an eclectic\* collection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ethnic groups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its members and advance the nation.

\*assimilationist: 동화주의자 \*indigenous: 토착의/원산의 \*arbitrariness: 임의성 \*eclectic: 절충적

- B. Spolsky, *Language Policy* 외에서 변용



[사회계열 문제 3] 다음 자료들을 각각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1>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두 입장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자료 2**

### 각국의 법정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제도와 출산율

국가	법정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일	이용률	출산율
스웨덴	60일	95.8%	1.98명
영국	14일	72.2%	1.84명
한국	3일	23.6%	1.22명



# 외대 리오X 예상변형 1회 - 인문 해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시문 1>

모든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믿어져 왔다. 그러나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 할 경우, 그 사회의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현대국가에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해 왔으며, 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즉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치적 제약 조건, 근시안적 규제, 시장경제와 같은 유인동기의 부족,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 빈부격차 및 산업구조의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결국은 그 사회 전체의 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시장경제체제 중에서 시장의 역할 외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예외적 조정이 경제성장의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을 보여 준다.

## <제시문 2>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 하나의 측면은 공무원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인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근로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에 대한 중립성 등의 보장을 위하여 집단적인 파업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현행 관련 법령은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원 외의 업무를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법령이 공무원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정치체제 중에서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이 국민 전체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에 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평등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 준다.

## <제시문 3>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복수의 개인들 사이의 평등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상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됨과 동시에 개인들 사이의 평등까지도 보장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불가피하게 희생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 불가피한 상황, 즉 (1)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만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 상황, (2) 개인들 사이의 평등은 보장되지만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않은 상황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이 (2)보다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불평등과 타인의 특권을 감내해야 하더라도, 국가뿐 아니라 어느 누구의 침해도 없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가하는 편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당하는 전체주의적 분위기에서 평등을 구가하는 편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시민 전체의 평등은 모두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이 중 하나가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이 존재 하게 된다면, 개인의 평등은 다소 제한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주의적 정치체제임을 보여 준다





**<제시문 4>**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들의 능력 차이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에 대한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 사회 내에서의 빈부격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지나친 확대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 사회의 전체적 효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강제적 가격규제는 비숙련 단순 노동직종을 대체하는 업무 자동화를 더욱 촉진하여,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고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목적이 어떠한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임금을 정부가 강제로 결정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시장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이고,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이다.

**<제시문 5>**

미국 뉴욕 주 보건당국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비만 방지를 위하여, 학교 인근에서 고열량 인스턴트 음식을 판매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들도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voucher)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비만 증상을 보이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고열량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개인의 선호를 무시하는 정부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뉴욕 주 의회의 조례로 통과되고 뉴욕 주민 대다수 역시 이러한 정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뉴욕 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평등하게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들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개입이, 뉴욕 주민들의 평등권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까지 받아서 성공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정치체제에 있어,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보다 더 중요하며, 뉴욕 주의 사례에서 확인됨을 보여 준다. 즉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더라도 평등한 민주적 질서를 강조하는 <제시문 2>가 뉴욕 주의 사례를 통해서 타당함이 확인 된다. 반면,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주장하는 <제시문 3>은 뉴욕 주의 사례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

**<제시문 6>**

SSM(Super Supermarket)은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크고 대형마트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최근 정부는 SSM에 관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 권리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제시문 6>의 입장에서, <문제 1>의 두 입장에 대하여 각각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제 3]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사회체제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인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Language policy in Latin America is assimilationist\*, seeking "to impose the colonial languages on speakers of other languages, whether they be immigrant, slave, or indigenous\* people." Spanish-speaking settlers in Latin America shared a puristic language ideology which initially considered anything indigenous to be impure. When considering the flexibility, creativity, and social aspect of language, employing a unilingual policy on a national level raises certain concerns. Saussure, a Swiss linguist, argued that language arbitrariness\* should be a point of consideration and mentioned that language communicability is achieved through the natural inclinations of a language community. Nevertheless, a national policy on language, as set by the government, warrants certain merits. A government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escribing a communal identity to an eclectic\* collection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ethnic groups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its members and advance the nation.

\*assimilationist: 동화주의자 \*indigenous: 토착의/원산의 \*arbitrariness: 임의성 \*eclectic: 절충적

- B. Spolsky, *Language Policy* 외에서 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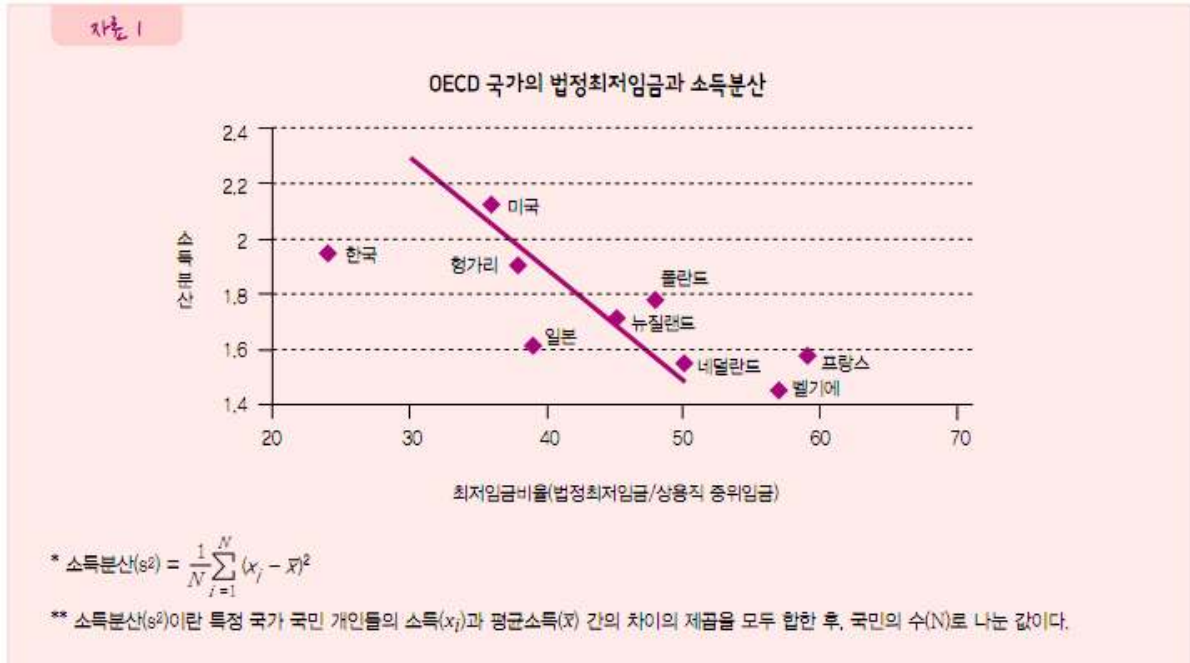
국가가 언어의 순수성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를 통제하고 언어사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적용해 본다면, 경제 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사회계열>

[문제 3] 다음 자료들을 각각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1>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두 입장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자료 2**

**각국의 법정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제도와 출산율**

국가	법정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일	이용률	출산율
스웨덴	60일	95.8%	1.98명
영국	14일	72.2%	1.84명
한국	3일	23.6%	1.22명

1. <자료 1> - OECD 국가 중 최저임금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소득분산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소득수준의 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최저임금정책은 소득수준의 평등도를 개선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임.

2. <자료 2> - 법정유급휴가일이 많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으며, 법정유급휴가일이 낮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낮다. 이는 출산율을 제 고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더 강력한 정책 개입을 할 경우, 출산율 제고에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임.

3. 두 유형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1) '순수한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 <제시문 4>에 나타나는 순수한 시장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정부 정책개입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자료 1>과 <자료 2>는 정부 정책개입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순수한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인 <제시문 4>의 입장이 현실과 다름(즉 틀렸음)을 보여 주고 있 다.

2)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 <제시문 1>에 나타나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실패 교정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개입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높이는 정부 정책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1>과 <자료 2>는 <제시문 1>의 입장을 옹호하는 자료이다.





# 한국외대 라이9 유명영 2회 - 인문사회

2019학년도 한국외대의 변화된 논술 출제 유명 분석		
	2018학년도 까지	2019학년도 부터
시간	120분	100분
문양	4문항	3문항
논제 1	200자 이내의 제시문(영문포함) 요약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 요약
논제 2	제시문 A의 관점에서 B를 비판 및 B의 입장에서 재반박하기	제시문 F의 관점에서 A의 두 입장을 각각 C와 D를 활용해서 비판하기
논제 3	제시문 C에 근거하여 D의 두 입장을 비교하기	인문 - 영어제시문에 근거하여 제시문 A의 두 입장 중 선택(자기견해)
		사회 - 자료해석에 근거하여 제시문 A의 두 입장 중 선택(자기견해)
논제 4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 3번은 통합적 사고를 묻는 자기견해형 문제
유사유형	논제 1 - 성균관대 1번, 경희대(사회) 1번 논제 2 - 경희대(사회) 2번	
글자수	400~600자 내외	
채점방식	성균관대와 유사한 채점방식	
따라서 동점자 발생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실질적인 승부는 3번에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이들과 함께 타고 가는 열차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토의를 할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토론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토론을 회피한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 비판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개인을 침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대중 매체가 주도하는 여론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논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여론의 향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속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한다. 만약 자신의 의견이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느끼면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론이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이슈에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하면 할수록, 특별히 다른 관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침묵하게 된다.

<제시문 2>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심장의 벌레에 대해 옷장의 나방에 대해  
찬장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긋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제시문 3>

1인 가구가 5년 전보다 100만 가구나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80년에 4.8%에 불과하던 1인 가구는 2010년 23.9%, 2015년 27.1%에 이어 2035년에는 3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네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1인 가구가 무려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어딘가 불안전하며 우울하고 외로울 거라는 편견에 짓눌렸던 1인 가구는 이제 타인 때문에 써야 하는 역할 가면(페르소나)을 벗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집





단이 됐다.

‘1인 가구, 낙오자에서 트렌드 세터(유행 선도자)가 되다’ 라는 문구처럼, 실제로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편의점을 비롯해 최근 쇼핑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1인 가구가 주목 받고 있다. 유럽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기는 하지만, ‘혼밥’, ‘혼술’이 차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밖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

물론 1인 가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거비와 생활비이다. 앞으로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및 소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타인의 도움 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1인 가구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책이다.

<제시문 4>

<안나 카레니나>에 등장하는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톨스토이가 그려낸 도덕군자이자 내부지향형 인물인 레빈과 대조적으로 매우 사교적이고 훨씬 더 약삭빠른 인물이다. 스테판은 어떤 모임에서든 탁월한 사교술을 뽐내고 그의 정치적 처세 또한 뛰어난 사교성을 띤다.

그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신문 대신 자유주의적 신문을 구독한다. 요컨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문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이니 예술이니 정치니 하는 것들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화제에 오를 때면 언제나 그런 신문의 논조와 대다수 사람들의 통설을 자기 의견인 양 내세우곤 한다. 그러다가 대중의 의견이 바뀌면 비로소 자기 생각도 바꾸는 것이다. 아니, 그가 바꾼다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스테판은 주장도 견해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그것들이 저절로 그의 마음속에 스며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가 모자나 외투 모양새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보통 남들이 쓰는 기성품을 사다가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에게 있어 한 사회에 몸을 붙이고 살면서 어떤 견해를 취한다는 것은 마치 반드시 모자를 사 써야 하는 일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에 그가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품고 있던 보수적인 주장보다도 자유주의적인 주장을 더 존중하는 데에 무슨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자유주의를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이 그의 생활방식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이다.

<제시문 5>

나는 이런 불안을 안고 외국까지 건너갔다. 외국에 유학한 이상 다소의 책임을 새롭게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애를 써서 뭔가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어떤 책을 읽어도 여전히 자루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이 자루를 뚫는 송곳은 온 런던을 뒤져보아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때 나는 비로소 ‘문학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개념을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나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타인본위로 그 근처를 아무렇게나 방황하고 있었다. 타인본위라는 것은 자신의 술을 타인에게 마시게 하여 품평을 듣고는 이치에 맞건 안 맞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남 흉내 내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략) 뜻도 모르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고 해도 좋고, 혹은 기계적인 지식이라 표현해도 좋을 터인데 도저히 우리 소유, 혈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서먹서먹한 것을 마치 제 것이라는 듯한 얼굴로 지껄이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문학을 전공했다. 본토의 비평가가 말하는 부분과 내 생각이 모순되면 보통의 경우 아무래도 주눅이 들게 된다. 따라서 ‘이런 모순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풍속, 인정, 습관, 거슬러 올라가 국민의 성향이 모두 이 모순의 원인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접한 보통 학자는 문학과 과학을 혼동해서 ‘갑’ 국민의 맘에 드는 것은 틀림없이 ‘을’ 국민의 칭찬을 얻기 마련이고 그러한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오해한다. 설령 그 모순을 융화하는 일이 불가능해도 그것을 설명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단지 그 설명만으로도 일본 문단에 한 줄기 광명을 비출 수 있다.

나는 그 후 문예에 대한 내 고유한 입장을 다지기 위해 문예와는 전혀 관계없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본위라는 네 글자를 가까스로 생각해 그 자기본위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와 철학적 사색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자기본위라는 언어를 손에 쥘 뒤부터 매우 강해졌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는 기개가 생겼다.

나는 이 네 글자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남의 꿈무니만 쫓아 허풍을 떠는 것은 대단히 염려되는 상황이므로 그렇게 서양인 흉내를 내지 않아도 좋은 확고부동한 이유를 그들 앞에 당당하게 제시하면 나 자신도 유쾌하고 남도 기뻐하리라고 생각해 저서나 그 외의 수단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내 생애의 사업으로 삼고자 했다.

<제시문 6>

독일 유학 때 살았던 집은 공동 주거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였다. 4명의 학생이 살았는데, 우리는 각자의 방을 갖고 있었다. 각자의 방은 개인의 고유 영역이었다. 그 집에는 4개의 방이 있고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다. 거실이 있어서 방에서 공부하다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책을 들고 거실 소파에 가서 읽을 수 있었다. 손님이 오면 거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크리스마스 방학이라도 맞아서 독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그 넓은 저택을 혼자서 쓰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부엌은 충분히 넓었다. 4개의 화구가 있는 전기스토브에 심지어 대형 오븐까지 있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세탁기까지 있었다. 더 이상 빨래를 하기 위해 배낭에 빨래를 가득 구겨 넣고 자전거를 타고 유료 세탁소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공동생활이기에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율적 규칙이지만 공동의 생활을 조정하기 위한 규율은 매우 엄격해서, 그것을 어기면 쫓겨나는 것을 각오해야 할 정도이다. (중략)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서로 쓸데없이 과잉으로 친하지도 않았고, 과잉으로 가깝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각자 자기의 방에서 고유성을 지키되,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를 집단주의로 몰아넣지도, 경제적 이기주의로 빠지게 하지도 않았다.

자율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개인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주거 공간 안에서 개인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공동 주거는 새로운 개인,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새로운 관계를 전체로 한다. 사회적 개인만이 이 새로운 주거 형태에 동의할 수 있다. 경제적 이기주의를 추종하는 개인에게 내 주거의 일부를 타인과 공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도덕주의자에게 가족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주거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행위는 음란하다고 판단한다. 개인은 분명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지만, 자신을 자율적인 주체로 구성하는 방법을 단독자가 아닌 공동체의 모델을 통해 찾는다는 점에서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개인과 개인이 이러한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불가피하게 공동감에 대한 인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사회 또는 타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문제 2] <제시문 6>의 입장에서, [문제 1]의 두 입장이(=태도가)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를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활용하여 논하시오(=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인문계열 문제 3]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개인의 태도에 해당되는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While Americans are spending less time doing sports, we are spending more time and money watching sports now than we were only a few decades ago. Sports spectatorship<sup>1</sup> has been rising rapidly, which helps explain the rapid rise in the salaries of professional athletes. In part, the growth in spectatorship reflects our television viewing habits, but it is also reflected in live attendance figures. Adjusted for population growth, attendance at major sporting events has nearly doubled since the 1960s. The year-to-year fortunes of individual sports have varied with the excitement of the season and the vicissitudes<sup>2</sup>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but virtually all major sports have seen growth in per capita<sup>3</sup> attendance over the last four decades - professional baseball, basketball, football, hockey, and stock-car racing, as well as college football and basketball.

This same phenomenon - observing up, doing down - appears in other spheres of American life. In both popular and high culture, audience growth has generally matched or exceeded population growth. Surveys suggest steady or even increasing per capita attendance at art museums, pop and rock concerts, and movies. Between 1986 and 1998, while churchgoing was falling by 10 percent, museumgoing was up by 10 percent; while home entertaining was down by a quarter, moviegoing was up by a quarter; and while club meeting attendance was down by a third, pop/rock concert attendance was up by a third.

1) spectatorship: 구경, 관람      2) vicissitudes: 변동, 부침(浮沈)      3) per capita: 1인당





[사회계열 문제 3] 다음의 <자료 1>과 <자료 2>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징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두 가지 연구 결과이다.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개인의 태도에 해당하는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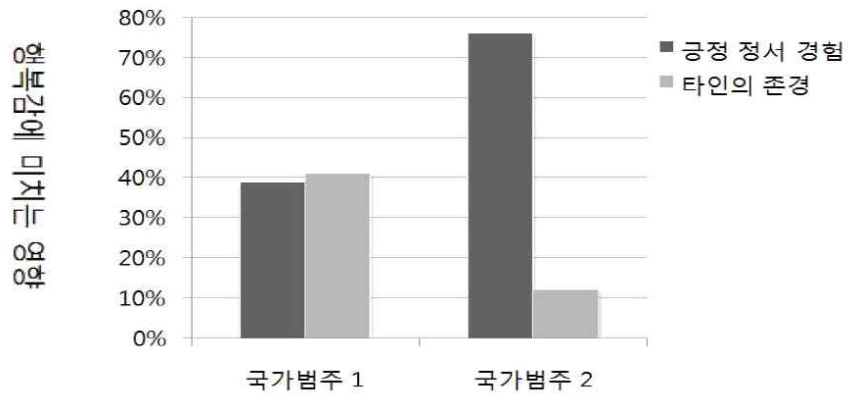
<자료 1>

국가	목표 우선성	행복감
중국	2.00	16.43
인도네시아	2.20	21.89
덴마크	7.70	25.00
독일	7.35	23.27
한국	2.40	18.42
일본	4.30	20.20
호주	9.00	23.05
오스트리아	6.75	24.28
노르웨이	6.95	25.24
미국	9.55	23.64

※ 1. 목표 우선성: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의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해당함(1점~10점)

2. 행복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5점~35점)

<자료 2>



<자료 2>

- ※ 1. 국가범주 1: 개인 목표보다 집단 목표를 중요시하는 나라들, 국가범주 2: 집단 목표보다 개인 목표를 중요시 하는 나라들
- 2. 긍정 정서 경험: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좋은 기분과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
- 3. 타인의 존경: 일상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정도





# 외대 라이오 영영웅 2회 - 인문사회 해설

2019학년도 한국외대의 변화된 논술 출제 유형 분석		
	2018학년도 까지	2019학년도 부터
시간	120분	100분
문양	4문항	3문항
논제 1	200자 이내의 제시문(영문포함) 요약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 요약
논제 2	제시문 A의 관점에서 B를 비판 및 B의 입장에서 재반박하기	제시문 F의 관점에서 A의 두 입장을 각각 C와 D를 활용해서 비판하기
논제 3	제시문 C에 근거하여 D의 두 입장을 비교하기	인문 - 영어제시문에 근거하여 제시문 A의 두 입장 중 선택(자기견해)
		사회 - 자료해석에 근거하여 제시문 A의 두 입장 중 선택(자기견해)
논제 4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료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 3번은 통합적 사고를 묻는 자기견해형 문제
유사유형	논제 1 - 성균관대 1번, 경희대(사회) 1번 논제 2 - 경희대(사회) 2번	
글자수	400~600자 내외	
채점방식	성균관대와 유사한 채점방식	
<b>따라서 동점자 발생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실질적인 승부는 3번에서!</b>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이들과 함께 타고 가는 열차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토의를 할 경우 자신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토론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토론을 회피한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 비판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은 개인을 침묵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들은 대중 매체가 주도하는 여론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논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여론의 향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속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려고 한다. 만약 자신의 의견이 소수 의견에 속한다고 느끼면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론이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이슈에 침묵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하면 할수록, 특별히 다른 관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 침묵하게 된다.

대중매체가 주도하는 여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론의 향방을 따라 점점 더 침묵하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전락한다 -> 개인의 자율성을 비판

<제시문 2>

-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 미쳐버리고 싶은지 미쳐지지 않는지
- 나한테 토로하지 말라
- 심장의 별레에 대해 옷장의 나방에 대해
- 찬장의 거미줄에 대해 터지는 복장에 대해
-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 웃겼고, 웃기고, 웃길 물골에 대해
-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 당신이 직접
-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서는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내면의 고통이나 삶의 어려움과 대적하지 못한 채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는 적극적인 태도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라. ->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

<제시문 3>

1인 가구가 5년 전보다 100만 가구나 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80년에 4.8%에 불과하던 1인 가구는 2010년 23.9%, 2015년 27.1%에 이어 2035년에는 3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네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1인 가구인 셈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1인 가구가 무려 전체 가구의 40%에 달한다. 어딘가 불완전하며 우울하고 외로울 거라는 편견에 짓눌렸던 1인 가구는 이제 타인 때문에 써야 하는 역할 가면(페르소나)을 벗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됐다.

‘1인 가구, 낙오자에서 트렌드 세터(유행 선도자)가 되다’ 라는 문구처럼, 실제로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편의점을 비롯해 최근 쇼핑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1인 가구가 주목 받고 있다. 유럽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기는 하지만, ‘혼밥’, ‘혼술’이 차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밖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편해졌다.

물론 1인 가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거비와 생활비이다. 앞으로 1인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및 소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타인의 도움 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1인 가구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대책이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현대 소비 사회의 유행을 선도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

<제시문 4>

<안나 카레니나>에 등장하는 스테판 아르카디예비치는 톨스토이가 그려낸 도덕군자이자 내부지향형 인물인 레빈과 대조적으로 매우 사교적이고 훨씬 더 약삭빠른 인물이다. 스테판은 어떤 모임에서든 탁월한 사교술을 뽐내고 그의 정치적 처세 또한 뛰어난 사교성을 띤다.

그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신문 대신 자유주의적 신문을 구독한다. 요컨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신문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이니 예술이니 정치니 하는 것들에 대해 별다른 흥미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화제에 오를 때면 언제나 그런 신문의 논조와 대다수 사람들의 통설을 자기 의견인 양 내세우곤 한다. 그러다가 대중의 의견이 바뀌면 비로소 자기 생각도 바꾸는 것이다. 아니, 그가 바꾼다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스테판은 주장도 견해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그것들이 저절로 그의 마음속에 스며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가 모자나 외투 모양새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보통 남들이 쓰는 기성품을 사다가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에게 있어 한 사회에 몸을 붙이고 살면서 어떤 견해를 취한다는 것은 마치 반드시 모자를 사 써야 하는 일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에 그가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품고 있던 보수적인 주장보다도 자유주의적인 주장을 더 존중하는 데에 무슨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자유주의를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이 그의 생활방식에 더 잘 맞았기 때문이다.

스테판은 소설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타인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주체성 없는 개인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 개인의 타율성을 비판

<제시문 5>

나는 이런 불안을 안고 외국까지 건너갔다. 외국에 유학한 이상 다소의 책임을 새롭게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애를 써서 원가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어떤 책을 읽어도 여전히 자루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이 자루를 뚫는 송곳은 온 런던을 뒤져보아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때 나는 비로소 ‘문학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개념을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나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타인본위로 그 근처를 아무렇게나 방황하고 있었다. 타인본위라는 것은 자신의 술을 타인에게 마시게 하여 품평을 듣고는 이치에 맞건 안 맞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남 흉내 내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략) 뜻도 모르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좋고, 혹은 기계적인 지식이라 표현해도 좋을 터인데 도저히 우리 소유, 혈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서먹서먹한 것을 마치 제 것이라는 듯한 얼굴로 지껄이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문학을 전공했다. 본토의 비평가가 말하는 부분과 내 생각이 모순되면 보통의 경우 아무래도 주눅이 들게 된다. 따라서 ‘이런 모순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풍속, 인정,





습관, 거슬러 올라가 국민의 성향이 모두 이 모순의 원인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접한 보통 학자는 문학과 과학을 혼동해서 ‘갑’ 국민의 맘에 드는 것은 틀림없이 ‘을’ 국민의 칭찬을 얻기 마련이고 그러한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오해한다. 설령 그 모순을 용화하는 일이 불가능해도 그것을 설명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단지 그 설명만으로도 일본 문단에 한 줄기 광명을 비출 수 있다.

나는 그 후 문예에 대한 내 고유한 입장을 다지기 위해 문예와는 전혀 관계없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본위라는 네 글자를 가까스로 생각해 그 자기본위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인 연구와 철학적 사색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자기본위라는 언어를 손에 쥔 뒤부터 매우 강해졌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는 기개가 생겼다.

나는 이 네 글자에서 새롭게 출발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남의 꿈무니만 쫓아 허풍을 떠는 것은 대단히 염려되는 상황이므로 그렇게 서양인 흉내를 내지 않아도 좋은 확고부동한 이유를 그들 앞에 당당하게 제시하면 나 자신도 유쾌하고 남도 기뻐하리라고 생각해 저서나 그 외의 수단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내 생애의 사업으로 삼고자 했다.

학자는 서양 학문을 무분별하게 추종해서는 결코 고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본위의 철학과 사상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

<제시문 6>

독일 유학 때 살았던 집은 공동 주거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였다. 4명의 학생이 살았는데, 우리는 각자의 방을 갖고 있었다. 각자의 방은 개인의 고유 영역이었다. 그 집에는 4개의 방이 있고 4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다. 거실이 있어서 방에서 공부하다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책을 들고 거실 소파에 가서 읽을 수 있었다. 손님이 오면 거실을 사용할 수 있었고, 크리스마스 방학이라도 맞아서 독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그 넓은 저택을 혼자서 쓰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부엌은 충분히 넓었다. 4개의 화구가 있는 전기스토브에 심지어 대형 오븐까지 있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에 세탁기까지 있었다. 더 이상 빨래를 하기 위해 배낭에 빨래를 가득 구겨 넣고 자전거를 타고 유료 세탁소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공동생활이기에 뭐든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율적 규칙이지만 공동의 생활을 조정하기 위한 규율은 매우 엄격해서, 그것을 어기면 쫓겨나는 것을 각오해야 할 정도이다. (중략)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서로 쓸데없이 과잉으로 찬하지도 않았고, 과잉으로 가깝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각자 자기의 방에서 고유성을 지키되,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를 집단주의로 몰아넣지도, 경제적 이기주의로 빠지게 하지도 않았다.

자율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개인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주거 공간 안에서 개인들은 상호 독립적이다. 공동 주거는 새로운 개인,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새로운 관계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개인만이 이 새로운 주거 형태에 동의할 수 있다. 경제적 이기주의를 추종하는 개인에게 내 주거의 일부를 타인과 공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도덕주의자에게 가족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주거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행위는 음란하다고 판단한다. 개인은 분명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이지만, 자신을 자율적인 주체로 구성하는 방법을 단독자가 아닌 공동체의 모델을 통해 찾는다는 점에서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개인과 개인이 이러한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공통감에 대한 인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회구성원 각자 자신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타인과의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추구할 때, 개인은 자기 삶의 자율적 주체이자 진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거듭 난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사회 또는 타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10점)**

**가이드 답안**

개인의 사회(또는 타자)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는 제시문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2, 3, 5와 타율성을 보여주는 1, 4로 나뉜다.

우선 2는 타인이나 사회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주체성을 스스로 세우라는 글이다. 3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유행을 선도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5는 외국 이론이나 사조에 따르지 않고 자기 본위의 철학과 사상을 세우려는 학자의 노력을 표현했다.

반면 1은 대중 매체의 여론을 무비판적,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침묵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다루고 있고(침묵의 나선이론). 4는 자신의 입장을 타인의 의견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주체성 없는 개인을 보여준다.

**[문제 2] <제시문 6>의 입장에서, [문제 1]의 두 입장이(=태도가)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를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활용하여 논하시오(=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가이드 답안**

제시문 6은 상호 독립적인 개인들이 공동체적으로 공존하는 공동 주거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자율적 개인은 자신의 일부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개인은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타인과의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동시에 추구할 때 자율적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1과 2를 비판할 수 있다. 우선 1은 소수 의견을 가진 개인이 소속 집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침묵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침묵이 늘어날수록 침묵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집단이나 타인과의 관계 유지 때문에 스스로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2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소통 불가능성을 타인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이다. 인간은 애초에 고독한 존재다. 시적 화자는 인간의 고독과 비극성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말고 개인이 홀로 대면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단독자로서의 주체적 개인을 발견하고 지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체적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적 존재와 대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즉, 2와 달리 타인과 소통하는 자율적 개인은 공통감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는다.





**[인문계열 문제 3] 다음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개인의 태도에 해당되는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While Americans are spending less time doing sports, we are spending more time and money watching sports now than we were only a few decades ago. Sports spectatorship<sup>1</sup> has been rising rapidly, which helps explain the rapid rise in the salaries of professional athletes. In part, the growth in spectatorship reflects our television viewing habits, but it is also reflected in live attendance figures. Adjusted for population growth, attendance at major sporting events has nearly doubled since the 1960s. The year-to-year fortunes of individual sports have varied with the excitement of the season and the vicissitudes<sup>2</sup>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but virtually all major sports have seen growth in per capita<sup>3</sup> attendance over the last four decades - professional baseball, basketball, football, hockey, and stock-car racing, as well as college football and basketball.

This same phenomenon - observing up, doing down - appears in other spheres of American life. In both popular and high culture, audience growth has generally matched or exceeded population growth. Surveys suggest steady or even increasing per capita attendance at art museums, pop and rock concerts, and movies. Between 1986 and 1998, while churchgoing was falling by 10 percent, museumgoing was up by 10 percent; while home entertaining was down by a quarter, moviegoing was up by a quarter; and while club meeting attendance was down by a third, pop/rock concert attendance was up by a third.

- 1) spectatorship: 구경, 관람      2) vicissitudes: 변동, 부침(浮沈)      3) per capita: 1인당

미국인들이 스포츠와 문화생활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현상은 해마다 증가하고 또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 개인의 타율성을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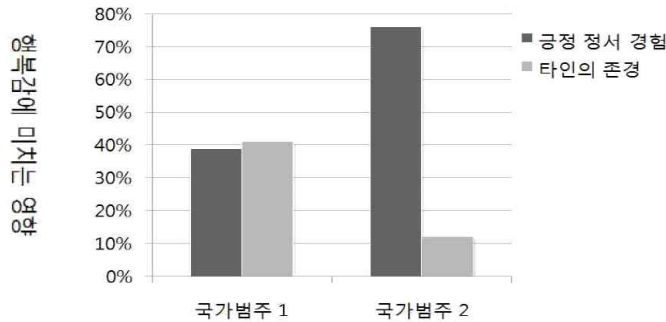
[사회계열 문제 3] 다음의 <자료 1>과 <자료 2>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특징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두 가지 연구 결과이다.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개인의 태도에 해당하는지 추론하시오. (600자 내외, 280점)

<자료 1>

국가	목표 우선성	행복감
중국	2.00	16.43
인도네시아	2.20	21.89
덴마크	7.70	25.00
독일	7.35	23.27
한국	2.40	18.42
일본	4.30	20.20
호주	9.00	23.05
오스트리아	6.75	24.28
노르웨이	6.95	25.24
미국	9.55	23.64

- ※ 1. 목표 우선성: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을 우선시 하는가의 문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목표를 집단 목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 해당함(1점~10점)
- 2. 행복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5점~35점)

<자료 2>



<자료 2>

- ※ 1. 국가범주 1: 개인 목표보다 집단 목표를 중요시하는 나라들, 국가범주 2: 집단 목표보다 개인 목표를 중요시 하는 나라들
- 2. 긍정 정서 경험: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좋은 기분과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
- 3. 타인의 존경: 일상생활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정도

**해설**

- i) 서양의 국가들은 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개인주의), 동양의 국가들은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중요하게 여긴다(집단주의). 그리고 삶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측정된 행복감 수준은 서양이 동양보다 높다.
- ii)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성취, 삶의 즐거움과 만족이 중요하며 이러한 특징은 서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대인 관계와 집단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 조화와 협력, 그리고 집단의 성취가 중요 하며 이러한 특징은 동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 iii) 개인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의 지표로 삼으면 그러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잘 충족되는 서양의 국가들이 동양의 국가들보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하면 문화에 따라 주관적인 행복감과 행복에 끼치는 요인이 상이하다.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의 국가들은 집단의 목표나 타인의 존경보다 개인의 목표와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동양





의 국가들은 개인의 목표나 정서보다 집단의 목표나 타인의 존경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삶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측정된 행복감 수준은 서양이 동양보다 높다.

<자료 1>과 <자료 2>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주의가 개인의 행복감을 증대시키므로 집단주의보다 더 옳은 가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고, 행복감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의 목표를 중시하는 서양의 나라들이 집단을 중시하는 나라들에 비해 행복감은 높은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개인의 행복에 더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와 달리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집단주의를 중시하는 동양의 나라들의 행복감이 낮은 이유가 <자료 2>에 나타난 타인의 존경이 <자료 1>의 주관적인 행복감에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행복감은 개인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인데,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달리 타인의 존경은 개인이 직접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문화적 규범을 잘 따르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지가 개인의 행복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